

## 휴대전화기「아이넥스」 ISO 9001 인증 획득 내외반도체

내외반도체(대표 정창훈)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세계표준화기구로부터 「ISO-9001」을 획득했다.

내외반도체는 최근 세계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한 심사기관인 독일 기술검정사협회(TüV-CERT)로부터 자사의 휴대전화기인 「아이넥스」에 대해 ISO-9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외반도체가 획득한 ISO-9001은 세계표준화기구가 부여하는 품질경영인증제도인 ISO-9000시리즈중 최상위로 설계에서부터 제조는 물론 AS까지 제품 전반에 관해 품질과 경영상태를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내외반도체는 「아이넥스」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모든 과정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으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자사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 IC 카드사업 참여

###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IC카드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우전자는 그룹의 ID카드사업

추진과 전자주민증·교통카드 등 향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공공부분의 IC카드시장에 본격 참여하기 위해 최근 별도의 「IC카드사업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대우전자는 IC카드분야의 후발주자인 점을 감안, 우선 그룹계열사의 ID카드사업을 금년부터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룹 ID카드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주민증·교통카드 등 공공부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우전자는 이를 위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기로 하고 독일의 톱슨, 프랑스 불 및 쟈플러사 등과 IC 칩생산기술 및 칩운용체계(COS)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우전자는 COS개발 및 IC카드관련 토털 솔루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 베네수엘라에 판매법인 설립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자본금 100만 달러를 단독 투자해 컬러TV 및 VCR·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대우 브랜드로 판매하는 베네수엘라 판매법인

(DEVECA)을 수도 카라카스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이 판매법인에서 올해 3,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대우브랜드의 현지 시장점유율을 15% 이상 높일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이를 위해 카라카스 시내에 상설전시장 등 직영매장을 확보하는 한편 입간판,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와 신문, 잡지광고를 통한 기업이미지 및 제품광고에 주력할 예정인데 인근지역인 멕시코에 이미 현지공장과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2, 3년내 고급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망을 가진 AS업체와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본사에 AS사무실을 운영하고 첨단 AS장비설치, 현지 채용서비스기술자와 품질관리엔지니어에 대한 교육 등 AS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대만에서 냉장고 신제품 발표회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입체냉장고 탱크」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일차 대만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최근 대만내 3대 도시 순회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이 지역 판매활동을 대

폭 강화키로 했다.

대우전자는 타이쑹(Taichung)을 시작으로 타이난(Tainan), 타이페이(Taipei) 등을 차례로 순회하며 「입체냉장고 탱크」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12월 27일 첫 발표회가 열린 타이쑹 소고백화점에는 현지 언론인과 전자관련 공무원 및 바이어 등 500여명이 참석, 호황을 이루었다.

2000년 전세계 냉장고 시장의 10% 점유를 목표로 냉장고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전자는 이번 신제품 발표회를 계기로 대만 내 냉장고 판매실적을 94년 70,000대, 95년 10만대에서 96년에는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20만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만 현지판매 법인을 중심으로 언론매체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대만의 현지 에이전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것으로 대우전자는 입체냉장고 발표회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공기방울 세탁기 「보송보송」 신제품 발표회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는 등 대만시장 우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대우전자가 자체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입체냉장고 탱크는 세계최초로 2팬 3면 입체냉각 방식 및 2단 냉각방식을 채용하여 냉장실

과 냉동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사용 형태를 연구, 분석하여 인체공학적으로 하는 등 기본 성능과 품질이 우수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다.

## 멕시코 냉장고·세탁기

### 공장 준공

#### 대우전자

가전제품의 미주지역 현지생산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최근 멕시코에 3,800만불을 단독 투자해 냉장고·세탁기 공장을 건설, 양재열 사장을 비롯해 부르고스(Enrique Burgos) 깨레따로 주지사, 가르사(Cecilio Garza Limon)주한 멕시코 대사, 이상진 주멕시코 대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9월 12시)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멕시코 까레따로(Queretaro) 주의 16,000여평 부지에 건설돼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 대우전자 멕시코 냉장고·세탁기 공장(DEHAMEX : Daewoo Electronics Home Appliance de Mexico, S.A. de C.V.)은 올해부터 연간 냉장고 20만대와 세탁기 40만대를 생산, 멕시코 내수 및 인근 북미, 중남미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향후 멕시코를 포함

한 미주지역의 냉장고, 세탁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년 이내에 생산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설하는 등 미주지역의 백색가전 주력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며, 2천년까지 세계 냉장고·세탁기 시장의 10%이상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이 공장 설립으로 소노라주에 있는 기존의 TV, VTR, 모니터 및 전자부품 생산 복합가전단지 및 '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판매법인과 함께 주력 제품 대부분에 대한 생산·판매 일관체제를 구축하게 됐으며, 향후 전자렌지 및 청소기 등 품목도 확대하는 한편 디자인이나 기능 등 현지 시장특성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해 현지 R&D 센터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 제3세대 광 케이블

### 설계기술 개발

####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핵심부분인 광가입자용 제3세대 초다심 광케이블 설계기술을 개발했다.

대우통신은 지난 1년동안 총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광가입자용 제3세대 초다심 광케이블을 개발, 최근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 전선·광케이블심

포지엄(IWCS)」에서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은 외부의 영향으로 광케이블 내부의 광섬유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섬유를 케이블보다 어느정도 길게해 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밀도 광케이블 설계의 핵심기술이다. 특히 이 기술은 광케이블의 기본재료가 유리질인 광섬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당겨지거나 구부러짐에 대단히 약한데 일반 동케이블과는 달리 내부 광섬유의 길이를 케이블 길이보다 더 길게해 중심케이블 외곽을 나선형으로 감는 구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술은 광케이블내 광섬유가닥의 여유율과 연입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광케이블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A/V통합 홈PC '코러스 홈' 시판

### 대우통신

대우통신은 17인치 대형화면에 TV 기능 등 가전 기능을 통합하고 한글윈도95를 탑재한 "TV만큼 쓰기 쉬운 A/V통합형 홈 PC" 코러스 홈 (모델명 : CPC-8000)

을 개발완료하고 최근 시판에 들어갔다.

대우통신이 96년 PC시장에서 총 35만대의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상품의 하나로 선보이는 코러스 홈은 마치 TV를 켜듯이 전원만 켜면 오픈월드라는 초기 그림화면이 나타나고 한번의 리모컨 작동으로 바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오픈월드에는 TV·영화·노래방·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월드, 전화·빠빠호출·팩스 전송·PC통신·인터넷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월드, 훈아름·명인95 등 문서작성에서부터 가계부까지 작성할 수 있는 사무월드, 노바스툼·돌풍 스트라이커95 등의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월드 등이 있다.

이와함께 유아/학습월드에는 대

우통신이 미국 UCLA대학, LA교육국, 이화여대 아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유아교육용 소프트웨어 꼭꼭숨어라를 비롯, 사운드까지 제공하는 백과사전, 민병철 생활영어 등의 소프트웨어가 제공됨으로써 교육용PC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홈 PC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

꼭꼭 숨어라는 코러스 홈에 기본품목으로 무료제공하는 한편 타이틀로도 판매를 하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영어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래동화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익힐 수 있는 이야기 별,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탐정의 별, 재미있는 가면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면의 별, 놀이를 하면서 숫자를 익힐 수 있는 게임의



별 등이 있어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이다.

## 중국에 컬러브라운관 공장 건설

### 삼성전관

삼성전관(대표 孫 郁)은 중국 진출을 위해 심천에 소재한 중국 국영기업인 현대전자(MAC)의 브라운관 생산라인을 인수, 중국 측과 80대 20의 비율로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합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관이 총 6억달러를 투입하는 중국 공장은 기존 MAC사의 생산라인 전면 교체와 함께 내년 초 신공장 건설에 착수, 1차로 오는 97년 4월까지 2개라인 연 3백만대, 2차로 98년 10월까지 2개라인 연 3백만대 규모의 컬러브라운관 설비를 추가 도입, 연간 6백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회사는 심천 공장에서 14인치 및 21인치 컬러TV용 브라운관(CPT)을 집중 생산, 연평균성장률 15%, 오는 2000년의 내수 시장만도 연간 4천만대에 이르는 중국 현지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시장 추세에 따라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생산도 검토키로 했다.

세계 최대 브라운관업체인 삼성전관은 이번 중국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97년 초에는 말레이시아 1,000만대, 독일 300만대, 멕시코 600만대 등을 포함, 해외 현지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2,500만대에 달하게 된다.

## HDD용 핵심 칩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년간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기존제품보다 처리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초당 16.6MB의 속도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저장된 자료를 전송·재생시키는 핵심 반도체 「AT Controller」를 개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이 칩은 확장 IDE방식을 채용, 초당 8.3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PC와의 데이터 전송·자료의 기록·재생·재생자료의 오류정정 기능 및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는 헤드의 위치제어기능 등을 갖추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제품이 HDD를 2개까지 접속이 가능한데 반해 이 제품은 EIDE(확장 IDE)방식으로 데이터의 저장을 HDD용량이나 작업량에 따라 원하는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연결성을 갖춰 HDD 4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최대 저장용량도 8GB까지 높

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HDD는 PC사용 환경의 멀티미디어화 및 윈도 95 발표에 힘입어 대용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홈PC의 보급 및 인터넷 열풍 등으로 PC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힘입어 올해 8,000만대·159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000만대·178억 달러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서 리모콘 모듈 수 신기 생산

### 세일반도체

세일반도체(대표 곽호경)가 리모컨 모듈수신기를 중국 현지에서 본격 생산한다.

세일반도체는 최근 총 75만 달러를 투자해 중국 동안지역에 연면적 800평의 공장동과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춘 「세안(동안)전자유한공사」를 설립, 금년까지 라인구축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세일반도체는 이번 현지공장 설립을 계기로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반제품 상태로 국내에 반입 완제품을 제작해 수요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세일측은 「중국에는 각국의 AV업체들이 대거진출, 세계 오디

오 공급량의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향후 리모컨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설립한 중국 동완 공장에 사출·프레스 라인을 구축, 리모컨시스템 완제품 공급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테이프 없이 녹음 가능한 플래시 백(Flashback IC Recorder) 시판

### 세진산업

세진산업(대표 정순천)은 무게 85g. 실리콘 벨리의 최첨단 녹음 기술, 한손으로 눈감고도 작동시킬수 있는 초간편 기능, 세계 최초의 IC 녹음기 '플래시 백'을 시판에 들어갔다.

플래시(Flash)-이름 그대로 이 작은 녹음기는 순간적인 액세스(access) 기능이 뛰어나다. 버튼 두개에 의하여 '바로 그 순간' 쉽게 녹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진보된 디지털 음성 녹음 기술을 채용, 움직이는 어떤 부품도 내장되어 있지 않고, 자기장이나 진동 및 기타 다른 외부의 힘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 많은 벨트, 각종 기어 및 모터

등의 움직이는 일반 테이프식 녹음기에 비해 고장 확률이 월등히 적다.

즉 테이프가 없어 일반 녹음기처럼 테이프를 되감거나 뒤집어 끼울 필요도 없고 테이프 엉김도 없다. 이 모든 장점이 플래시 백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클립'에 의한 것. 이 사운드 클립은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 만든 2메가 바이트의 반도체 기억 소자로 일반 테이프처럼 변질되는 일없이, 반복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전원운용 시스템도 플래시 백의 첨단 기능 가운데 하나. 이 시스템에 의해 배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즉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혹은 버튼 하나로 정지 상태(Idle Mode)나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전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CD체인저 컴포넌트 출시

### 아남전자

아남전자(대표 조석구)는 7장 짜리 CD체인저를 채용한 고출력 제품이며 절전기능이 뛰어난 하이파이 컴포넌트시스템(모델명 델타-3500)을 개발, 이달말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채널당 정격출력이 125W인 이 제품은 절전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마이컴 회로를 채용해 10분 동안 사용되는 마이컴 회로를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앰프·튜너·데크·CDP 등을 자동적으로 끄는 절전기능을 갖춘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또 매일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기기를 동작시키는 기능과 특정시간의 방송을 예약 녹음할 수 있는 기능 등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고 금빛과 삼페인빛 등 두 종류의 알루미늄 패널을 채용, 외관을 고급화했다.

앰프(AA-3500)는 전원 정류 회로를 분리 설계해 전원 간섭을 크게 줄였고 스피커를 여유있게 구동시키는 병렬방식으로 설계됐다. 튜너(AT-3500)는 AM과 FM에 각 30개씩 채널을 메모리 하는 기능, 방송국명 표시기능, AM·FM 전용 IC를 채용했다.

데크(DX-3000)는 돌비사의 감쇄회로를 채용, 최적의 녹음상

태를 유지하도록 했고 CDP (AGC-3500)는 18비트 디지털 오디오(DA)컨버터를 채용했다. 이퀄라이저(AE-3500)는 2개의 스피커수로 입체 음향효과를 낼 수 있는 스페셜서라운드 기능을 채용했다.

## 스펙트럼 분석기 양산 이디엔지니어링

이디엔지니어링(대표 박용진)은 지난 94년 6월부터 1년6개월간 총 8억원의 개발비를 투자, 국내 처음으로 1.4GHz급 스펙트럼 분석기(모델명 DSA-8400)를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동통신 기기·케이블TV전송선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 전파를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작동을 버튼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측정대상 주파수의 범위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고 측정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디엔지니어링은 이 제품 판매가를 동급 수입제품보다 40%나 낮은 440만원대로 정하고 내수판매에 이어 유럽·미주 등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FAB 공장 건설

##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히타치사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 케다주쿨림 공업단지에 8인치 웨이퍼 월산 3만개 규모의 반도체 일관가공생산(FAB)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D램의 한·일 합작 생산은 이번이 처음이며 주로 반도체 조립생산기지로 활용돼온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 FAB가 들어서는 것도 이번 LG·히타치 합작공장이 처음이다.

오는 6월 착공, 97년말에 완공 예정인 말레이시아 합작공장에는 총 12억 5,0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데 히타치와 LG가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투자키로 했다.

주력 생산품목은 16MD램과 64MD램으로 본격 생산이 시작되는 98년초에는 16MD램 생산에 주력하고 99년부터 0.35 $\mu$ 급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한 64MD램 생산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LG 측은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자본금 3,200억원 규모의 별도법인 「H-L세미콘(가칭)」을 설립키로 했으며 합작법인의 대표는 히타치 측에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LG반도체는 「이번 말레이시아 합작공장은 반도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해외생산기지를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

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1~2년 내에 스코틀랜드와 미주 지역 해외공장 건립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멀티 PC 「심포니 II」 시판

##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주력 모델인 「심포니」의 후속모델로 사운드 기능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대폭 증대시킨 멀티PC 「심포니 II」시리즈(모델명 GH53P008C, GH53P138C)를 오는 1월 8일부터 본격 시판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심포니 II」는 국내 처음으로 펜티엄 100내 처음으로 펜티엄 133MHz의 CPU를 채용한 고기능 제품으로 대용량 멀티 환경에 적합하도록 한글 윈도95 및 1.8GB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드라이브, 8MB 메모리, 4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장착했다.

특히 PCM(Pulse Coded Module)방식의 사운드를 지원하는 고성능 스피커를 비롯해 자동설치 및 실행기능을 지닌 CD롬타이틀과 리모티가 함께 제공돼 사용자의 편리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스피커의 외형을 곡선을 강조, 전체 외형을 부드럽게 처리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 디지털 휴대폰 시장 진출

### LG 정보통신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디지털 휴대전화기를 개발, 이 분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정보통신은 금년 1월1일부터 디지털방식의 CDMA 휴대전화상용서비스를 계기로 「프리웨이(모델명 QCP-800)」의 형식 검정을 마치고 이 시장에 본격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LG정보가 이번에 선보인 「프리웨이」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식과 내년부터 서비스에 나설 디지털방식을 겸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에 따라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미약한 전파에 강하고 주파수를 자동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통화중 끊김현상을 개선한 데다 기존 아날로그 휴대전화기에 비해 건전지 사용시간을 3배(대기시간 72시간, 통화시간 300분) 이상 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서버 신제품 발표

### 한국 후지쯔

한국후지쯔(대표 이경호)가 독자 운영체제(OS) 계열의 신형 서

버인 「K 6000α」 시리즈를 발표했다.

한국후지쯔가 새로판매에 들어간 신형 서버인 「K 6000α」 시리즈는 64비트 RISC 프로세서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5인치 크기의 65MB 및 132MB의 반도체 디스크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230MB급 배밀도 광자기 디스크 장치를 표준으로 탑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RAID 5」 계열의 디스크 어레이를 장착할 수 있으며 LAN 프로세서를 기본으로 탑재, 네트워크 기능을 크게 탑재, 네트워크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한국후지쯔는 현재 국내에 「K」 시리즈 사용업체가 350여업체에 달한다고 보고 주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K 6000α」 시리즈를 공급할 계획이다.

## 트랜지스터 등 대대적

### 증산

### 한국전자

한국전자가 국내외에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 생산능력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공격적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전자는 지난해말 중국 우시공장을 본격 가동한데 이어 올해에도 전주와 제천에 트랜지스터(TR) 조립공장을 신축하고 해외

에는 필리핀에 세라믹 콘덴서 생산공장을, 미국에 TR생산공장 및 판매법인을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가 아울러 국내의 생산라인을 잇따라 구축하고 있는 것은 품목다각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TR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 및 제천공장은 약 150억 원을 투자, 올 상반기중 본격가동될 예정인데 전주공장은 월 6,000만개의 TR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고 제천공장에서는 기존 구미공장 설비를 이전, LCD 및 TR을 조립·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미공장에서는 기존 TO 92타입의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SMD타입 TR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닐라 근교의 필리핀 현지공장은 올 9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데 올초 합병예정인 신한전자의 세라믹콘덴서와 컬러TV를 생산, 미주 및 동남아수출의 전지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판매법인만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샌디에이고 사무소도 빠르면 1~2년내에 TR을 비롯한 부품 생산기지로 육성시켜 NAFTA지역 수출거점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튜너만을 생산중인 중국 우시공장에도 76억원을 들여 10월부터 월 4,000만개 수준의 TR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다.

## 위성통신 이용 무선 호출시스템 국산화 성공

###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약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와 공동으로 위성통신용 무선호출시스템(모델명 HPSS-20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무선호출교환국으로부터 기지국까지 구성된 수십개의 전용회선을 위성을 이용한 무선으로 대체한 것으로 위성시스템의 특징인 동보성을 이용, 전국을 단일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특히 이 시스템은 시스템운용자가 망관리시스템(NMS)을 이용해 네트워크 전체구성 및 동작상태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하고, 망관리시스템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DB)의 경우 중심국 각 요소와 240개소의 단말국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복수 캐리어로 사용해 약 1천만명의 무선호출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현대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위성통신용 무선호출시스템을 국제위성인 인텔셋위성을 이용한 링크시험 및 무선호출 송신기와의 접속을

통한 무선호출수신시험을 각각 완료한데 이어 상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16M 플래시 EEPROM 개발

###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최근 칩에 기록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소거할 수 있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인 16M 플래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를 개발, 9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플래시메모리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전원공급 없이도 10년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1,680만개의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집적, 신문 128페이지 분량의 기억용량을 갖는다. 또 회로선폭 0.6미크론의 가공기술을 이용한 가상접지기술을 적용, 칩 면적을 크게 줄이면서도 정보처리 속도를 90나노초(10억분의 1초)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40mA이하의 저전력 소비를 구현한 최첨단 제품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플래시메모리는 전기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디스켓 형태의 기억장치보다 읽는 속도가 5배이상 빨라 PCS·PDA 등 이동통신기기, PC·HDD 및 핸드폰 등의 내장용

컨트롤 프로그램 기억소자와 메모리카드는 물론, 대용량 기억소자인 하드디스크 대체용 보조기억장치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향후 큰 폭의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차세대 메모리 제품이다.

지난 94년말 4메가 EEPROM 개발에 이은 이번 16메가 제품 개발로 현대전자는 현재 인텔·AMD·도시바 등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보검색 단말기용 그래픽 엔진 ASIC 개발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그간 外産에 의존해온 정보검색 단말기용 핵심부품인 비디오 그래픽엔진 전용 주문형반도체(ASIC) 「VTX-GE3」를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현대의 「VTX-GE 3」는 비디오텍스 전용 VGA 컨트롤러, 키보드 인터페이스 로직, 램(RAM)에 기억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시키는 256 컬러 램택(RAMDAC) 뿐 아니라 스마트카드를 지원하는 포트 등을 포함, 기존에 각각의 칩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시킨 제품이다.